



토리노 동계올림픽
영웅 진선유 선수
인쇄인의 자랑스런 딸



진선유 선수가 쇼트트랙 3관왕에 오른 것이 확정되자 기뻐하고 있는 진대봉씨와 부인

토리노 동계올림픽 영웅 진선유 선수. 쇼트트랙 3관왕에 오르면서 온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진선유 선수의 부친이 인쇄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쇄업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

부친 진대봉(46세)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르바이트로 인쇄와 인연을 맺은 이후 최근까지 외길 인쇄인으로 살아왔다. 진 씨는 학업을 마친 후 활판 인쇄업체에서 근무하다가 1994년 대구에서 그린정밀인쇄라는 상호로 창업해 최근까지 이 업체를 직접 운영해 왔다.

최근에는 인쇄업을 접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3동 햇빛마을 22단지로 이주해 딸 진선유 선수의 뒷바라지에 전념하고 있다.

“인쇄업을 하면서 두 차례나 부도를 맞았어요. 생활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어린 진유가 운동에 전념해 이번에 3관왕에 올라 대견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한편으로는 딸한테 미안하기도 합니다”

진대봉 씨는 2색 오프셋인쇄기 두 대를 구입해 1994년 창업했지만 사업은 순항하지 못했다고 한다. 10년 사이 두 차례나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부도를 맞았다.

“기술력도 뒤지지 않고 항상 납품에 최선을 다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선유 뒷바라지도 해야겠고 부도에서 헤어날 길도 막막해 고양시로 올라왔습니다.”라고 말하는 진대봉 씨는 딸이 3관왕이 되었다고 내 생활이 달라질 수 없다는 생각에 서울 낙원상가에서 처남이 운영하는 약기대 여점 일을 돕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 한다.

지난 2월27일 행신3동 햇빛마을 22단지 부녀회가 마련한 축하마당에서 “대한민국의 딸로 자랑스럽게 키워주신 부

모님”이란 소리를 들을 때 하염없이 눈물이 솟았다는 진대봉 씨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쇼트트랙 선수가 되도록 선유의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선유 선수는 1988년 생으로 10살 때부터 쇼트트랙을 시작했으며 현재 광문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다. 이번 토리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1000m, 1500m,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제11회 스포츠조선 코카콜라 체육대상 여자신인상(2006), 3차 쇼트트랙 월드컵 5관왕(2005)에 오른 바 있다.

진선유 선수는 “올림픽에 처음 참가해서 3관왕에 올라 기쁘다. 훈련할 때 많이 힘들었는데 도와주신 모든 분들, 송재근 코치, 오빠 언니,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진선유 선수는 이제 고3 학생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미 선수로서의 ‘부침’을 다 겪어본 ‘베테랑’이기도 하다. 중학교 3학년 때 부상과 슬럼프로 선수생활의 위기를 겪었지만 치열한 경쟁과 훈련을 통해 이듬해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2004년 선수단 구타사건, 2005년 코치선임 파문 등 ‘외풍’이 거뒀지만 선수 본분을 잃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그럴 때마다 실력이 더 상승했다.

코칭스태프가 입을 모아 말하는 진선유의 장점은 성실성. 가녀린 외모와 달리 강한 승부욕을 가졌으며 남자선수들과의 훈련에서도 좀처럼 뒤떨어지지 않는다. 대표팀의 송재근 코치는 “쉽게 살이 찌는 체질도 아니고 체력과 성실함을 타고났기 때문에 마음먹기에 따라 앞으로 몇 개든 금메달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창준국장 chang@print.or.kr